# 화쟁 통한 소통, 공동체 번영 지킨다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한 줄기 등불은 천년의 어둠을 한 순간에 없애고 지혜의 참다움은 만년의 어리석음을 찰나에 제거합니다. 을사년 신년 첫날에 떠오르는 밝은 해는 지난 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일시에 없애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남북 분단 속에서 동서 그리고 상하(上下)와 좌우, 신구(新舊)라는 분별심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임계치는 극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할 옳음(義)이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利)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중첩에 중첩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사분오열되는 원인 제공에는 설사 평범한 갑남을녀(甲男乙女)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안(案)은 소통이라는 통로의 확보입니다. 공생(共生)을 위한 통합의 길은 제3자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서로서로 화쟁(和諍)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그 길을 가꾸어 나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통로는 백가(百家)의 이견(異見)을 일가(一家)의 동견(同見)으로 만들 수 있는 신묘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화쟁을 향한 소통의 길만이 오천 년 공동체의 터전과 번영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치를 필두로 사회적 전 영역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평화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서 K-선명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진수와 세대 간에 화합의 방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축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 세계인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역동성을 알리면서 지구공동체가 화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달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사바세계 방방곡곡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거듭 청(請)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툼은 그치고 어울림으로 함께 사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백천공해(百川共海)요
만상일천(萬像一天)이로다
백천의 강물은 바다에서 함께 하고
만가지 모습은 하늘에서 하나가 되도다

# '나' 내려놓고 본분 충실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지난 해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불·보살님의 동체대비심이 가득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중생이 온갖 욕망에 빠져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즉 '아상(我相)'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다'는 잘못된 생각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를 내려놓읍시다. 나를 내려놓으면 교만은 저절로 사라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맑고 향기롭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된 불자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가 수행에 매진해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착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을 '허공과 같이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연못에서 피지만 물에 젖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 전 국민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면 내면의 평화가 씨앗이 되어 사회의 긴장과 불안, 갈등 과 대립은 저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과 통합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평화가 깃들고 인류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을사년이 되길 다함께 축원합니다.

# 변화 실감하며 서원 정진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을사년(乙巳年)입니다.
새해 새날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다시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길을 열어갑시다.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날이 열리면서 대일(大日)의 밝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니 온 누리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慈悲光明)으로 충만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면 매일 매일 희망이 샘솟는 새날처럼 살 수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시대 눈부신 기술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의 생태계에서는 한치 앞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 자리,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면서 상생을 위한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변화를 실감하면서 서원하고 정진하여 다 같이 잘 사는 만다라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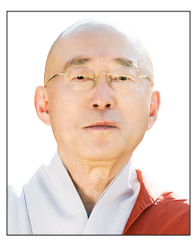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는 불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곧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자성을 닦으며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은 안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32대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여는 정신으로 안팎을 두루 살피면서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재원을 확충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스템화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심인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밀엄정토가 구현되고 온 인류에 복지(福智)가 구족(具足)되기를 서원합니다.

# 내려놓음으로 더 큰 희망 키워라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집착 속에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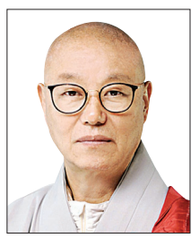
후안무치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무는 겨울에 모든 잎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다가올 봄을 위해 더 나은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고집과 탐욕, 분노와 대립의 잎사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5년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해 더 큰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생각 바르면 '정도' 솟아난다
〈正道〉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인류의 평화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한 시국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기 보다는 대중의 지혜와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더욱 더 강해지는 불굴의 힘이 저 깊이 내재되어 있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태고종에서도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은 민족의 불교로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법(佛法)과 수행을 통해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태고종은 새로운 해를 맞아 '현대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치유하고자 '불교명상지도사'들을 공인하는 민간자격발급과정을 등록, 운영하여 육성해서 배출하는 제도를 더욱 심화하고 튼튼하게 다져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중연소생(衆緣所生)의 이치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럿의 인연이 계합할 때 비로소 만물이 큰 힘을 얻고 군생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나고 생각이 삿되면 그르침이 뒤따릅니다.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은 바른 생각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뜻과 행동으로 일관하면 비록 비뚤어진 생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준동하더라도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한 해는 사회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곧은 의지로 사회 부조리와 비리를 타개하고 밝고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 가슴 새긴 원력 씨앗 꽃 피우는 한 해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상주불변하는 법계에 해가 달라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만 이토록 시간을 구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어두웠던 지난 일들은 참회로서 마음을 맑히며, 성숙한 자세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날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명약관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행과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 무명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원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일체중생의 입장과 바라는 바에 따라 방편도로써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설하시니, 간절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공덕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하오며, 모두의 가슴마다 새긴 원력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대화상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